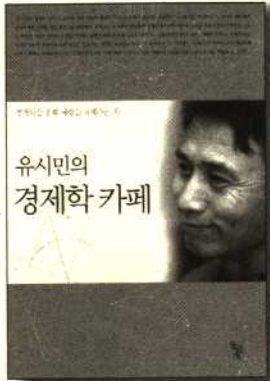


교보, 영풍, Yes 24, 알라딘 등 전국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경제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곳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신국판 / 356쪽 / 값 12,000원

내 직업은 '지식소매상'이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에 오면 경제학과 경제현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가 손님들에게 제공하려는 것은 경제학적 사고방식이다.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 철학적·사회적 배경과 용도를 알고 공부하면 훨씬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경제학 카페'의 손님들에게 커피를 팔려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맛나게 끓이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이 카페에서 주고받는 이야기의 주제는 정치와 교육, 환경 오염과 마약, 매매춘, 부정부패 등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다. 나는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싶지만 경제학 교과서를 펼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분들이 이 '경제학 카페'에 초대하고 싶다.

— 경제학 카페를 열면서

카페 주인 유시민은 얼마전 MBC (100분토론) 진행자 일을 그만두고 시사평론가로 복귀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후 뒤늦게 독일 오페스 구텐베르크 대학으로 유학을 가 다시 5년 동안 경제학 공부를 하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MBC (100분토론) 진행자를 그만두고 '지식소매상'으로 돌아온 저자가
'거꾸로 읽는 세계사',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이후 10년 만에 내놓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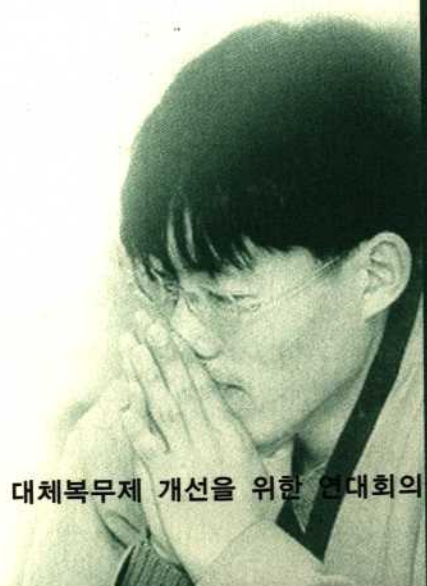
알파벳이 얇은 학문적 깊이와, TV 토론 진행과 시사칼럼 집필로 다져온 필뎁이 있는 현실감각까지 갖춘 '양수경장'이다. — 중앙일보
경제학의 기본 이론들을 이력저런 이슈들에 접목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학에 더 쉽게, 더 실용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 한겨레신문
경제학이란 학문을, 세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훌륭한 인식의 도구로 만들어준다. — 국민일보
세상을 통해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학을 통해 사회를 뒤집어보는 이런 읽기의 재미를 제공하는 책이다. — 내외경제신문
마치 카페에 독자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듯 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 대한매일신문

돌베개

www.corights.net

인권정보자료실
CPh1.55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인권정보자료실
CPh1.55

사람들이 입술로는 기억하나

가슴으로는 잊어버리는<성서>의 슬한 구절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예는 아마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모든 것을 남김없이 수량화, 추상화하려 드는 오늘날의 세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 한 마리의 양은 잊혀지고 무시되어도 좋은 것인가.

한 인간의 자유와 생명의 값어치는

다른 99명 인간의 그것의 99분의 1로 계산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지극히 작은 한 인간의 생명이

우주 전체와도 맞바꿀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우리가 늘상 우리와 인연 없다는 타인이라는 착각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그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현저하게 결핍되어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인권변호사 조영래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개선, 성숙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길

양심에 따라 총을 들 수 없고,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 등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저희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이 소책자는 병역거부의 의미와 병역거부자의 현실, 그리고 대체복무제에 대해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많은 토론회가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군대가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전쟁의 시간에 머물러 계신 70대 할아버지를 보면서, 북한의 전쟁 가능성에 매시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국방부의 관계자를 보면서 지나온 분단역사의 아픔과 무게감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역사 때문에 항상 강한 국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국가 앞에서 개인의 권리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세상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발전하여 다양한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는 흐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안보의식'이나 '애국심'도 국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군대의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마냥 국가를 위하는 것이니 희생을 강요한다고 해서 국가안보의식이 생길까요?

현대 국가에서는 국민의 의무를 두고 있지만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개개인의 인권과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생각만 바꾸면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하여 국가와 개인 모두를 위한 방법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역거부자 =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신과 다른 이들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이주 노동자를 학대하고, 동성애자를 백안시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도 인정할 수 있는 폴레랑스의 정신이 우리 사회는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군사훈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군사훈련을 할 수 없는 양심을 지닌 사람에게까지 군대 가라고 해야하는 것일까요?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감옥을 가야지', '총 들기 싫다고 감옥을 가다니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라는 생각들 속에서 '감옥 대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던 것은 아닌지요.

저희들은 평화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권은 그것이 단 1명에 해당되는 문제일지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CONTENTS

목 차

- '작은책'을 발간하며
-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 복무제 개선,
성숙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길
- 8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소개합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 11 · '대체복무제도가 세상을 바꾼다!'
- 대체복무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
- 14 · 지금은 논쟁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쟁점 Q&A'
- 21 · 어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백
'잊혀질 수 없는 기억에 대한 조사'
- 23 · '전쟁터가 아닌 산불 속으로 뛰어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대체복무제도 -
- 28 · 성직자의 눈으로 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31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발자취와 나아갈 길
- 33 · 사회봉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픈 어느 젊은이의 심경고백서
- '나에게는 진정 꿈이 있습니다' 중에서 - 오태양
- 36 · 도서, 웹페이지 소개
- 37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와
함께 하는 사람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를 소개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of military service)’란 ‘징집대상자로서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지 않는 비군사적·민간봉사적 성격의 분야에서 군복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성인 남성에게 대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에서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서는 이 양자의 조화를 보장해야 하는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전무한 관계로 인해 ‘군사항명죄’ 혹은 ‘병역법위반자’로 고발되어 일괄적으로 징역에 처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거부 및 징병거부로부터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는 6.25 전쟁을 겪고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도가 정착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군입영 후 집총거부자의 경우 ‘항명죄’가 적용되어 군형법 44조에 따라, 입영거부자의 경우 ‘병역기피죄’

가 적용되어 병역법 87, 88조에 따라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군부독재시절은 물론이거니와 문민정부시절인 90년대 중, 후반까지도 가중처벌로 3년 이상을 선고받거나, 35세까지 징집가능연령을 근거로 한 사람에게 2-3차례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렇게 항명죄 혹은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무려 1만여명에 달하고, 현재 1,700여명 가량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매년 600여명 정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이며 법적, 사회적 처벌 또한 매우 가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통계 참조)

가족 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투옥된 숫자

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수형자 수
1992년	220
1993년	277
1994년	233
1995년	427
1996년	355
1997년	403
1998년	474
1999년	513
2000년	642

가족 중 투옥자	수감자의 수
아버지	124
아버지+형제 1명	31
아버지+형제2명	3
형제1명	251
형제2명	21
형제3명	3
총계	43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형량별 분포

형량(개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수형자수
36	1,314
30	25
24	30
18	165
미결	106
계	1,640



현재 복역 중인 양심적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가석방 제도의 적용 문제입니다. 일반 재소자들과 달리 현재 대부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인 '여호와의 증인' 들은 가석방 심사기준에서 특별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심사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대표적인 1급 모범수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통상의 경우 50%이상 형기를 복역하면 가석방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반하여, 반드시 27개월(3년형의 75%이상 복역)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까지 26개월을 복무해야 했던 현역복무자의 복무기간보다 길게 복역하도록 의도적으로 가석방 신청기간을 장기화한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감자들은 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교직자의 방문을 받는 등 종교활동이 허용되고 있으나, 병역거부로 수감중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일체의 종교활동을 허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신청 기준과 종교활동 등의 차별행위를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2. 한국정부는 시급히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 등의 결의에서 촉구해온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규를 폐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체복무제도가 세상을 바꾼다!

-대체복무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

대체복무 제도 개선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안적 의무를 마련해 주어 인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경쟁이 되는 현역 군복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할 것이며, 헌법적 가치에 대한 성숙한 이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의 다양한 가치가 있을 것이지만 사회 구성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리인 관용(寬容)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관용은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이런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소수자(minority)가 운명적이고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누구라도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나 개인의 환경과 신념의 변화에 따라 처해질 수 있는 유동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평화 사상을 방법론으로서 그리고 실천적으로 공감한 이들은 전 역사와 전 사회를 걸쳐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이런 신념을 지닌 이들이 계속 존재해 왔다는 것은 이들의 문제가 미래의 나의 문제일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관용이 언제든지 그런 입장에 처할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의존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이를 어렵게 만듭니다. 자신은 힘들게 군생활을 하였으며 지금도 그 종교와는 아무관계가 없다는 해명 아닌 해명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대

책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체복무 제도는 영화를 보면서도 모든 갈등 구조를 착한 쪽과 악한 쪽, 혹은 내 편 아니면 네 편으로 갈라서 보려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한쪽 편에서 있으려는 이들에게 그 제도의 존재 자체로서 관용(寬容)의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도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음을 명백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둘째, 소신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부정직과 부패가 법과 제도가 없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이기보다는 사회 각 집단에 관행화된 부정직한 관습들을 뿌리칠 수 없는 사라진 소신 탓이고, 그것은 생각이 다르면 다수가 비난하고 따돌리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결국 양심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집단주의적 사회 분위기에 그 최종 책임이 있습니다. 다름이 그름으로 인정되는 사회에서 다수의 흐름에 저항할 줄 아는 소신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의 사소한 다름 역시 그름과 다를 바 없다고 여기기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런 따돌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단주의적이고 획일적인 사고는 양심의 작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내면에 어떤 가치관과 신념이 있던지 다수가 원하는 것을 따라야 하고 다름은 곧 그름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할 수밖에 없는 전체주의 사회가 가장 부패하고 부정직하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양심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최후의 보루로서 서로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소신이 생기고 눈치를 보는 일이 사라질 것이며, 투명하고 원칙이 통용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셋째, 대체복무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다양성을 가져다줍니다.

사회 제반 이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완성도 높은 해결책이나 제도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목전의 경제적 이익에만 치우친 개발과 환경 파괴에 대한 소수의 목소리를 고려한 개발 중 어느 것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적게 지불하게 만드는지는 수십 년의 급속한

우리의 개발 경험이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성에 비추어 본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베트남 전에 대한 한 통계에 의하면 1969년에서 1970년 사이 미국에서는 전체 징집 인원의 0.106%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였는데 전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 중 소위 주류 종교(mainstream church: 여기에는 카톨릭,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조합 교회, 감독교회, 유니테리언, 루터교 등이 포함된다 - 필자 주)의 신자가 30.5%이었고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이들도 20.0%에 달하였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을 참전시킨 한국 사회에서 당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의 스펙트럼은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는 단색만을 보여 줍니다.

외국에서는 그 개념조차 희미해지고 있는 이단이라는 말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집단주의적 사회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다수라는 양(量)으로 옳고 그름이라는 질(質)의 가치 판단을 시도하는 이단이라는 선정(煽情)적인 용어의 사용은 그 타당성과 관계없이 그들의 주장에 귀를 막게 만들어 건 강한 다양성의 자생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단으로 규정되었지만 결국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명된 과학적 발견이나 주장들에 대해 학계에서 좀 더 일찍 주목하였더라면 학문의 발전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2차 세계 대전 때인 1940년 미국의 병무청장쯤에 해당하는 군 장성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고려를 가리켜 우리의 민주주의가 국가적 긴급 상황하에서도 소수자의 인권을 보존하기에 정말 충분한지를 알아내기 위한 민주주의의 실험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대체복무에 대한 사회적 반응 역시 그러한 실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 행해지는 실험이 대체복무 제도가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보여 준다면 정직하고 올바른 상식이 지켜지고 왕따와 같은 집단주의적 분위기가 없는 사회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유익을 줄 것입니다.

Q

지금은 논쟁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쟁점 Q&A'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한다면, 군대에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것인가요?



흔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하면 군대에 가는 사람, 군사훈련을 받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것인가?' 이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를 '양심적인 것'이 아니면 '비양심적인 것'으로만 이분화해 온 사회적 고정관념의 영향이 큽니다.

양심이란 어떤 객관적이고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각 개인이 살아오며 형성해 온 신념, 사상, 가치관이자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개인에게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이기에 60억 인류에게는 각기 다른 60억 개의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양심의 자유'라고 하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양심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행동으로서 실현시킬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며, 따라서 군대에 가서 필수적으로 군사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행위를 거리낌없이 받아들이고 있기에 그들에게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평소에 따르던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격이나 총검술 등의 군사훈련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로 인식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군대'나 '군사훈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데, 군사훈련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로 인식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군사훈련'을 강요받았을 때 심각한 인격적 훼손이나 양심의 굴종을 가져올 수 있기에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심에 따라 군사훈련 및 양심을 거부한다는 것은 평소 자신이 따르던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가치관 등에 의거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에 가서 군사훈련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 또한 '진지한 자기확신'에 따르는 양심적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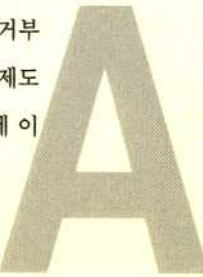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한국적 특수성 또한 있을 듯 한데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평화주의 전통에 근거하여 수천년동안 이어져 온 인류의 보편적인 행위양식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들어 국민개병의 원칙에 입각한 징병제도가 각 국가별로 정착되고,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동기로서만이 아닌 개인의 양심상의 이유에 근거한 보편적 인권으로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중 독일, 이스라엘, 대만을 비롯한 40여개 국에서 헌법 및 하위법을 통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실시한다고 우리나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북이 분단되어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중인 상황에서 말이죠. 하지만 한국과 유사한 안보환경에 있는 나라들도 일찍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군사적 임무가 아닌 비군사적 차원의 대체복무를 허용해 왔습니다. 현재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한창 전쟁 중인 1·2차 세계대전 중이나 직후에, 즉 전쟁위험이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독일 역시 동·서독이 대치중인 상황에서도 꾸준히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해 왔고, 이스라엘의 경우도 늘 주변국가와의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가운데 이



를 인정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와 안보상황은 물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은 대만조차 1999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시행은 안보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며, 이미 유엔에서도 87년 결의안을 통해 병역거부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기에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Q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병역특례제도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대체복무제도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현행 병역제도는 공익목적이나 방위산업육성 등을 목적으로 비군사분야의 군복무 인력을 매우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공익근무요원(55,000명), 산업기능요원(55,000명), 전문연구요원(15,000명), 공중보건의(1,000명) 등 현역복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13만명에 달하며,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등을 더하면 거의 20만명에 가까운 숫자가 현역이 아닌 직역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군입영 대상자인 40만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들은 약 4-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친 후 대체로 현역 군복무보다 다소 긴 기간을 복무하게 됩니다.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죠.

하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그것이 단 4주, 심지어는 단 한차례라고 하더라도 군사훈련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에, 이를 거부함으로써 3년 이하의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에 의해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도 있고, 3년 이하의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1700여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일체의 군사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병역특례의 선택조차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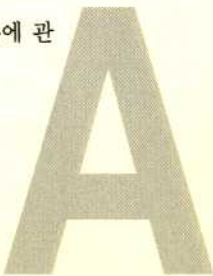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대체복무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군사훈련을 이수하지 않는' 비전투분야의 사회봉사활동이 주어져야 함을 의미

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군사훈련 만큼은 거부하지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할뿐더러, 병역거부의 동기가 대부분 '평화주의'에 기초한 것이기에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선별하나요?

A 양심의 진의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난해한 일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평화적 전통이 인정되어온 특정종교집단(예를들면 퀘이커나 메노나이트 등)이나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에게 한해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다. 하지만 최근에는 종교적 신념뿐만이 아닌 개인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자까지 제한없이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란 비단 종교의 자유만이 아니라 개인의 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종교적 신념에 따르는 병역거부자들에게만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한다면 종교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징역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병역거부의 동기가 되는 양심의 이유를 제한하는 것은 또다시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기에, 그 심의과정과 선별절차를 엄격하게 공평·화합으로써 해결해 가야할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심사·선별할 때에는 그 행위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기초한 진지한 결정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찍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권위있고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서면사유서, 이력서, 신원보증서, 구두면접심사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대체복무 판정을 받게 됩니다.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를 두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심의·처분에 관한 행정을 총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Q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주어지는 대체복무제도가 병역비리나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지 않을까요?

A 물론 민간대체복무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소위 고위층 자녀들의 불법적인 병역면제와 비리사건으로 인해 군복무 판정기준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대체복무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종교나 양심을 가장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대체복무제도의 근본 취지는 법적·제도적 보장이 없어 감옥에 가야만 하는 소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국민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악용 가능성만을 우려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매년 600여명 이상 발생하는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만 살펴더라도 수만명에 달하는 광범위한 병역특례제도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복무기간도 길 뿐더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회봉사를 위해 종교나 양심을 가장하면서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그리 많을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고된 징역살이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생을 전과자의 명예를 지고 살아야 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수가 무려 1만여명을 넘는다는 사실은 그들이 대체복무제도의 존재여부를 떠나서 '양심에 따르는 삶'이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것은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여부 이전에 1만여명이 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행위를 여전히 범죄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가 정당한 권리이자 그들의 양심상의 이유가 존중받아야 할 사항이라면 국민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제도이든지 시행초기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며,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착해 갈

것입니다. 대체복무자 심의·선별 절차를 엄격화·이중화함으로써 병역비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외국의 선진도입사례를 잘 연구하여 보완해 가야 할 것입니다.

Q 대체복무제도는 현역복무와 견준다면 군복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도 현역복무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말이죠.

A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제도의 기간은 현역복무기간의 1.5배 이내로 적용될 것이며, 복무분야 또한 복지시설에서의 사회봉사이기에 수월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2년 2개월 이상을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에 비한다면 편한 것 아닌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대체복무가 현역복부보다는 복무조건 면에서 수월하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현역입영대상자가 느끼는 군복무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근본적 원인은 불합리한 군복무제도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의 문제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었던 문제이며, 이는 대체복무제 도입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등 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대체복무의 도입이 군대내 인권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였고, 나아가서는 비효율적이며 불합리한 병역제도를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Q 현재 대부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복무제도는 특정종교집단에 대한 특혜가 아닐까요?

A 한국에서 과거, 현재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불교신자로서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씨와 같이 앞으로 한국사회에서는 비단 여호와의 증인 뿐 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르는 병역거부자들 또한 필연적으로

Q 발생할 것입니다. 대만의 경우만 보더라도 스님으로서 병역거부를 하여 현재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서구에서는 기독교, 카톨릭, 퀘이커 등 다양한 종교인들과 개인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현재의 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특정종교인이기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대응입니다. 대체복무제도는 비단 종교적 신념만이 아닌 보편적인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며, 그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Q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을 선택할 것인데, 그렇다면 남북이 군사적인 대치상황에서 안보위협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A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 기초군사력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다수 젊은이들이 대체복무를 신청할까요? 그것도 양심상의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로 말이죠. 다소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와 군사력규모와 안보상황이 유사한 대만에서도 이 점을 우려했었지만, 현역복무보다 1.5배나 긴 대체복무 신청자는 정원에 미달하였다고 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매년 600여명 남짓한 정도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이미 전체 군복무자의 1/3에 해당하는 인력이 현역이 아닌 비군사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군사력약화나 안보위협 우려는 다소 과장되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논리로 인해 되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21세기에는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안보가 아닌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한 인간안보개념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대체복무는 한국사회의 내적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어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백 '잊혀질 수 없는 기억에 대한 조사'

충남, 000, 53세, 농업

1969년 스물 하나 나이에 저는 병역법 위반으로 10개월의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어둡고 퀴퀴하고 둔탁한 1.3평짜리 방이던가, 똥덩어리가 텅텅거리며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방, 빈대 핏자국이 종횡무진으로 그어진 방, 여섯 명이 엇갈려 누워 있느라 발가락이 입에 닿던 방에서도 살아보았습니다. 고생이긴 했지만 인간유린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1974년 스물 일곱의 나이에 저는 또 병역법위반으로 3년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3년 구형에 1년 6개월을 언도 받았지만 저의 소신과 양심을 말하고 싶어 항소를 하였더니, 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3년을 언도하였습니다.

삼년이 지나 만 스물 아홉살이 되었고, 새벽 네시 대전교도소 보안과 사무실에서 자유를 꿈꾸던 저를 검은 가죽잠바의 병무청 직원이 또 징집 영장을 들고서 굳은 얼굴로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교도소 밖을 나서 또 다시 붙잡혀 가는 아들을 보며 저의 어머니의 눈에서는 피 같은 눈물이 쏟아졌고 저는 32사단 군부대로 실려갔습니다. 징집할 때는 전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징집하더니, 형을 줄 때는 전과로 인정하였습니다. 1977년, 그리하여 항명 최고형 2년인 것을 두 곱으로 4년을 선고했습니다. 무릎을 꿇리고 가슴을 군화발로 걷어차고 뒤통수를 시멘트 바닥에 메치고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곳이 공의의 법정이었는지 아프리카의 초원이었는지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하며 존중해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에의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의 조국에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가 그들이었어도 저도 그렇게 했을 것이기에 결코 열정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7년의 세월을 대전교도소, 32사단 영창, 양산 육군 제2교도소로, 순천교도소로, 김해교도소로, 또 순천교도소로, 하루도 덜도 아닌 꼬박 채워서 7년을 전전공궁하며 살았습니다. 일곱 해 세월 징역살이 동안 살인범도 감면을 받고 그 많은 강도 강간범도 감형을 받고 나갔습니다만, 저는 일곱 해 세월 중 단 하루도 감형이 없었습니다. 예수보다 강도 바라바를 사면하라고 외쳤던 유대사회가 생각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 사회에서 최악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무수한 사람들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만 내 손으로 죽여서 먹지는 못하는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벌은 한 번만 주시고, 벌은 별로 끝나고,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체봉사 같은 것을 통해서 양심을 지켜가면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허락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 일면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제정되든 국가와 법의 권위를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전쟁터가 아닌 산불 속으로 뛰어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대체복무제도 -

1. 2차대전시의 평화주의자들(World War II Pacifists)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진주만이 침공당한 후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파시스트의 위협을 인식하면서 제2차 대전을 지지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전쟁은 "선한 전쟁(the good war)"으로 알려졌고, 이 용어는 전쟁기간 동안 미국인들을 특징지었던 아주 드문 일치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단적 "선함" 對 "악함"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교적, 윤리적 그리고 정치적 원칙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데 참여하기를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인과 비종교 일반인들 모두를 포함했습니다.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하 CO)은 대부분 전통적인 평화교회들이었던 퀘이커(Quaker), 메노나이트(Mennonites), 그리고 형제교회(Bretheren)에 소속된 사람들이었고, '여호와증인' 뿐만 아니라 일부 모슬렘, 카톨릭, 유대인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종교인들은 다양한 정치적, 철학적, 윤리적, 그리고 인도주의적 원칙들에 의해 행동하였습니다. 전투요원과 마찬가지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도 기꺼이 그들의 목숨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국가를 위해 단순히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2차대전은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피비린내나는 갈등이었습니다. 약 350만에서

600만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전쟁의 필요성, 불가피성, 그리고 영광을 확신하는 세계에서 추방된 사람들(outcasts)입니다. 대중적인 지지를 받은 전쟁에 거부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사회, 가족, 친구, 일터, 그리고 종종 시민공공서비스(CPS) 캠프가 있는 작은 마을에서도 배척됨을 의미했습니다.

2. 시민공공서비스 캠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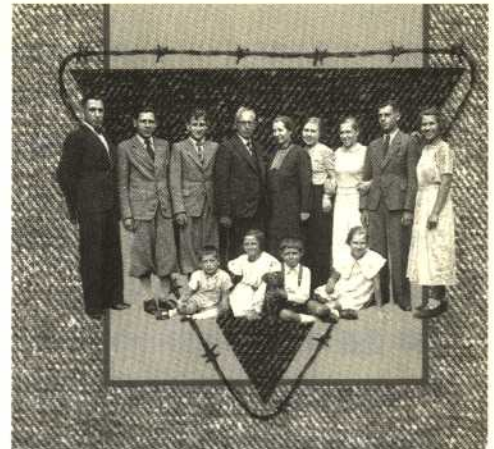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약 3만 7천 명의 CO들이 대체복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에 자원하였습니다. 전쟁터의 위생병, 화재소방수, 정신병원의 보조원, CPS의 노동자 등으로 그들은 극적이고도 위험한 방법으로 국가에 봉사했습니다. 1941년 캠프에 온 사람들은 6개월간 머물러야 했지만 그들은 전쟁기간 내내 그곳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6년 동안 봉사했고, 일부는 전쟁이 끝난 2년 후인 1947년까지도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캠프에서 이들은 주 6일, 하루 9시간의 고된 노동을 하고, 매달 정부에 숙식비로 35\$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CO 가운데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였고, 대부분은 평화교회 교인들의 현금에 의하여 지불되었고, 교회는 CO들에게 매달 2달러 50센트씩 제공하였습니다. 이들 가족에 대한 아무런 지원이 없어서 CO가족의 많은 이들이 전시에 극도의 빈곤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부과된 업무는 종종 노동자를 놀리지 않게 하기 위해 시키는 불필요한 작업(make-work)이어서,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자 열망했던 CO들은 대개의 경우 좌절하곤 했습니다. 교회지도자들은 CPS가 '전시 평화에 대한 영적 증언의 기반'으로서의 유토피아적 평화주의 공동체를 건설할 기회라는 신념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2차대전 당시의 CO였던 스티브 캐리(Steve Cary)는 CPS 캠프를 완벽한 동물원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캠프에는 박사들, 폴블라이트 수상자들,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주식중개자들, 발레 댄서들, 무신론자들, 근본주의자들,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 점이 아주 캠프를 아주 멋진 곳으로 만들었다."

2차대전시의 법적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CPS 캠프에서의 대체복무 혹은 군대에서의 비전투요원으로 복무하는 것 등 두 개의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이 캠프는 후에 민권운동이나 평화운동에서 사용된 비폭력 저항의 기법을 연마하는 요람이 되었습니다.

3. 2차 세계대전시 대체복무제

2차 대전시 대체 복무를 수행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 전역의 152개 시민공공서비스 캠프에 억류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전의 시민보호군(Civilian Conservation Corp)의 막사나 산림서비스 캠프에 수용되어 먼 지역의 식목, 화재 진화, 도로 건설, 댐 건설 등의 고된 노동을 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기생충으로 시달리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



2차 세계대전시 나치에 의해 죽거나 수용생활을 했던 가족 이들을 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병역거부로 강제수용소에 투옥되었던 증인들을 식별하기 위해 제복에 퀘멘 '보라색 삼각형'

위생시설 건설, 가난한 시골지역의 의료소 운영, 비행청소년, 농업실험, 토지보전 계획 등의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보다는 법에 의해 약속된 더 의미있는 일, 즉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했다. 수년동안 캠프에서 노동한 후에야 CO들에게 비로소 정신병원, 인간 모르모트, 국립공원의 산림소방원 등의 파견근무가 허용되었습니다.

1) 정신건강 개혁

CO들이 국가적 복지에 장기적으로 의미있게 기여했던 것은 약 20개 주의 41개 정신병원과 12개 주 17개의 정신지체아를 위한 훈련학교에서 복무한 것입니다. 1942년경이면 정신병원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시산업에서의 보다 높은 급료의 일자리를 찾아 떠난 때였습니다. 정신병원의 엄격함에 대항하여, CO들은 환자들을 돌보는 데 '비폭력적 방법'을 도입하였고, 환자들에 대한 인간적 대우를 위해 버지니아 주정부에 대한 소송에서 승리하였으며, 후에 '국립정신건강재단'이 된 조직을 설립하였으며, 1946년에는 <라이프 잡지>의 폭로 기사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소녀들

CO들의 부인을 포함하여, 병역을 거부한 많은 여성들이 병원업무에 동참하였는데, 300명의 여학생 평화주의자들은 자신들을 COGs로 불렀습니다. 이들은 당시 영부인이었던

엘리노어 루즈벨트의 시민공공서비스(CPS)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전 한 신문 칼럼에 "CO들은 국가를 위해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는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COGs의 방문을 받은 후 그녀는 CO들이 정신병원에 근무하면서 병원의 수준이 극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썼습니다. 이러한 접촉으로 그녀는 역사적 평화교회 멤버들과 함께 일하고 전후 '국립정신건강재단'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3) 인간 모르모트

약 500명의 CO들이 위험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말라리아, 전염성 간염, 부정형 폐렴, 발진티푸스 등의 치료를 위한 인간 모르모트가 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자원하였습니다. CO였던 닐 하트만(Niel Hartman)은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우리는 물론 '노란 창자'(겉쟁이를 의미) 같은 것 등 온갖 종류로 불리는 데 신경을 썼다. 나는 앰블런스차의 운전 에 자원했다. 그러나 American Field Service는 거절하면서 CO는 너무 많아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나는 젊었고 겉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들이 내게 모르모트가 될 기회를 제공했을 때, 그것은 내가 단지 누군가를 죽이기를 원치 않을 뿐, 내 자신의 몸에 대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획과 꼭 맞아 떨어졌다.

4) 산림소방원(지상접근이 곤란한 화재 현장에 낙하산으로 강하함)

1942년 뉴딜프로그램이었던 시민보호군(Civilian Conservation Corps, CCC)이 해체되자, CO들이 이들을 대신하여 서부 전역에 걸쳐 산림의 화재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화재 예방과 산불소방작업에 CPS 노동의 1/4가 차지하였고, 가장 정예화되고 위험하여 CO들이 선호한 업무는 바로 산불 현장에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1943년 여름 최초 그룹이 형성되었을 때, 300명의 시민공공서비스(CPS)요원이 자원하였습니다. 루크 버키(Luke Birky)는 메노나이트 smoke jumper camp에서 최초로 훈련받은 6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240명의 CO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몬타나, 아이다호, 오레곤 등의 기지에 분대로 배치되었습니다. 지독한 바위투성이 지역에 뛰어들거나 겨우 실습에서 배운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들은 화재가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확대되기 전

에 새로 산불이 난 지점에 바로 낙하산으로 접근했습니다.

4. 2차 세계대전시 전쟁터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

미국역사에서 처음으로, 법적으로 인정된 CO들에게 두 개의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군대에서 비전투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민공공서비스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2차 대전시 CO 가운데 25,000명이 비전투 위생병이나 군목 혹은 군중신부로 봉사하였습니다. 이들은 군대에 등록되어 있었고, 군복을 착용했으나 다른 사람들을 사살하는 것은 거부한 것입니다. 소속된 부대의 다른 위생병과는 달리, 이들은 직접 전쟁터로 무장을 하지 않은 채 참여했습니다. CO 위생병이었던 데스몬드 다스(Desmond Doss)는 포화 속에서의 용기 있는 활약으로 의회가 수여하는 영예훈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성직자의 눈으로 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모두를 위한 길

정진우 목사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단지 사회적 소수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가 서로 조화를 이룰때 다다를 수 있는 평화를 위한 길이며 그 평화의 기쁨은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최소한의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체복무제의 주장은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이나 특정종교를 위한 일이 이 나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늦게나마 우리 사회에 이러한 목소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역사의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역사를 살았습니다. 아주 쉽고도 간단한 깨달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해 형제간에 충질을 해대고 민족을 둘로 나누고 외세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몹쓸 병이 깊어져 이제는 동서가 나뉘고 종교간의 골이 깊어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이래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화로운 21세기 통일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돌아서 새 길로 가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길 말입니다. 배제하고 격리하는 길에서 돌이켜 서로를 보듬어 안는 그

런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남모르게 고통 당해 온 모든 분들에게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의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제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모든 평화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대체복무, 국가적 이익이다.

효림 스님



작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 대체복무(나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양심에 따른 병역대체복무로 바꾸어 부르고자 한다.)에 대하여 나는 논의 자체의 찬반에 관계없이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체검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 받아 군대를 가야 했던 시절에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이제 자신의 사상이나 가치관, 내지는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보면 예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병역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거부하여 탈영을 하거나 무작정 영장을 기피하고 그냥 감옥으로 가는 방법밖에 몰랐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너무 큰 손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방법을 채택하자고 주장하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하루 빨리 대체복무라는 방

법을 국가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더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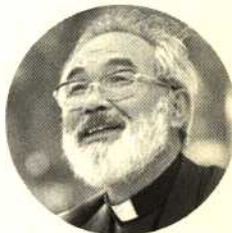
아니, 우리에게 이제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하루 빨리 대체복무를 국가가 받아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는 물론이고 개인의 손실을 막는 것입니다.

일부 생각이 고지식하고 막힌 사람들은 '어떻게 군대 가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느냐? 용서 할 수 없다' 하는 식이지만, 그들도 대체복무가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이며,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금방 환영하고 찬성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 용기가 없어서 양심적 병역 대체복무를 주장하고 나서지 못하는 젊은이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나서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주장과 대체복무는 결코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지대한 이익과 조국에 대한 충성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평화운동가

문정현 신부



76년 명동사건으로 서대문 구치소에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증인의 젊은 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해교도소에 가서도 그랬고, 홍성교도소에 가서도 병역거부자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분들은 교도소내에서 모두 요직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생활이 바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에 협력할 수 없다는 그들을 보면서 속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벽을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가까운 이들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보니 그들이 정말 평화운동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무기를 만드는 것, 무기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지지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발자취와 나아갈 길

· 주요일지

- 2001. 2 일부 언론을 통한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피해사례 보도
- 3 '징병제와 군복무 실태 및 대안보색을 위한 워크샵' 개최
- 6 천정배, 장영달 국회의원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입법추진 활동
- 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반대성명 발표로 대체복무 공청회 연기
- 7 '대만 대체복무제도 참관을 위한 한국참관인단' 파견
- 9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병역거부자에게 원심(3년) 파기하고 2년 6월 선고
- 12 오태양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후 사회봉사활동 시작
- 2002. 1 남부지원 '이경수'씨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수용 결정 (헌법재판소 계류 중)
- 2 30여개 종교사회시민단체가 참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발족
- 4 제 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민간단체참가단 파견 및 홍보활동
- 5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대중캠페인 및 국회입법청원 추진

· 발자취

2001년 2월 일부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은 국민들로부터의 동정과 지지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기총이나 국방부 등의 반대여론 또한 거세어서 한국사회에서 이 사안은 점차 국민적 쟁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조사단 파견, 터키 국제회의 개최, 엠네스티조사단의 성명발표, 유엔인권위원회 참여 등은 이 사안의 국제적 관심과 지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은 이 문제를 특정종교나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할 문제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켰고, 연대회의는 현재 40여개의 종교사회시민단체들의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세기 동안 병역거부자에게 3년형을 기계적으로 선고해 오던 사법부의 선고형량감소 추이는 이 사안에 대한 여론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재징집되지 않을 최소형량인 1년 6개월이 '맞춤형량'이 일반적으로 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통해 병역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처분, 선고 및 재판연기, 보석출원 등이 재판과정에서 수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해 600여명 이상의 병역거부자들 중 일부에 적용되는 사례이며, 여전히 대부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구속기소 및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나아갈 길

연대회의는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사법부의 태도변화, 국제사회의 지지여론 등을 통해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국회에 '대체복무법안'에 대한 입법청원을 준비중이며, 서명운동 및 가두캠페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문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지원과 연대 요청도 활발하여 유엔인권위 차원에서의 특별조사관 한국파견, 9월 아셈회의의 참여, 세계의 NGO들이 참여하는 국제토론회 개최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은 이렇듯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며, '연대회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총 대신 사회봉사의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부단히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봉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어느 젊은이의 심경고백서

- '나에게는 진정 꿈이 있습니다' 중에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저와 같은 이들을 두고 세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혹은 '병역기피자' 라고 일컫습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떻게 불리우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담긴 개인의 진실, 혹은 사회적 진실과 만나는 일일 테니까요. 앞으로

저 또한 그 길을 가야할 것이 분명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는 1594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범죄자로 취급되어 어렵고 차가운 감옥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의 수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7일이 되면 1595번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등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제시대로부터 60여 년 동안 이 땅에는 무려 수만 명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했었고, 현재 생존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만도 1만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재판자료에는 이들의 양심적 행위가 '단일한 죄목으로, 단 한 차례의 감형이나 사면복권 조치가 없었던 극악한 범죄'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슴 아픈 것은 그 범죄의 붉은 사선이 재판기록과 주민등록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1만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생기록과 그들의 가족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겠으나, 어떤 이는 어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20대의 혈기왕성한 대한민국 젊은이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20여 년이 넘게 소중히 키워왔던 인생의 꽃망울을 마음껏 터트려야 할 시

기에, 사회적 편견과 침묵의 감옥에서 고통스러워하거나 혹은 죽어갔던 그들에게 청춘의 삶이란, 사회의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올해 2월,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인생에 지워진 명예를 발견하고서 저는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죄란 과연 무엇일까?' '양심을 저울질하는 사회정의란 도대체 무엇일까?'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 끝에 나에게 돌아온 것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실존적 고민과 스물 일곱 내 인생에 대한 통절한 성찰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도저히 타협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이 삶의 화두를 두고 끝없이 고뇌하고 방황하며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진실과 만나가는 내면의 여행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듯 '불살생'의 종교적 신념과 평화·봉사의 인생관에 대한 확신의 이유로 도저히 사격, 총검술과 같은 군사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체의 전쟁행위에 대한 반대이며, 그런 확신에 따른 일체의 군사훈련 참여에 대한 거부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마땅히 사회구성원으로써 수많은 이들의 도움과 헌신적 노력 속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

간에도 영하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현역 군인들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 헌신적 노고가 더욱 '신성한 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병역을 이행하는 행위가 진실로 신성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적 결단 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병역의 의무가 단지 '군사훈련의 필수적 이수'와 '전투분야의 복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오지의 초등학교에서 무보수의 교직생활을 한다던가,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보살피는 봉사를 통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2001년 12월 17일 병역거부선언이후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희망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다

싶은 것입니다.

서울교대를 졸업한 저는 교원의 부족으로 폐교될 수밖에 없는 지역의 소외 받은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교사로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어느 추운 겨울 행려병자로 길거리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직장과 가정에서 버림받고 길 위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노숙자분들을 도와 삶의 희망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전쟁과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군사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개인적 서약은 제 삶에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지키고자 할 경우 저에게 돌아올 행위의 대가를 기꺼이 감수하고자 합니다. 다만 작고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젊은이가 한번도 만난 적 없는 1594명의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들과의 정신적 교감을 통해 이야기하고픈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것으로 족할 뿐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개인적 구제'를 넘어, 과거 1만여 양심적 병역거부 피해자들의 상처와 현재 1594명의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들의 고통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진실한 양심의 결단으로 고뇌하는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구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그리하여

저에게는 진정 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전쟁과 가난의 고통이 사라지는

꿈 말입니다.

그리고 걸어갈 것입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총 든 군인이 아닌 자원봉사자로 만나

인류의 꿈과 희망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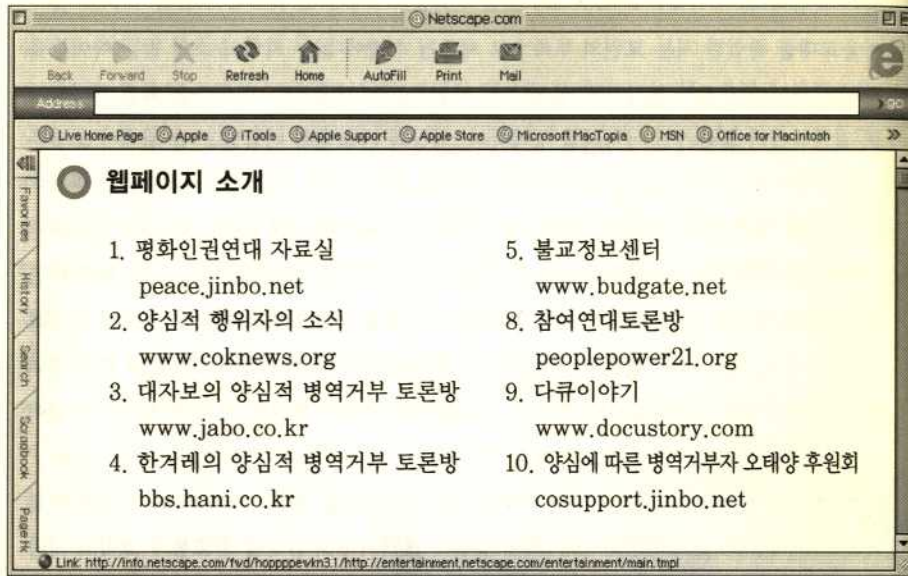
지구의 생명과 평화에 대해

웃고 이야기하며

함께 어깨동무 할 수 있는

그 날을

염원하며 말입니다.



● 칼을 쳐서 보습을

저 자 : 김두식
출판사 : <뉴스앤조이>
초 판 : 2002년 3월 23일
판 형 : 신국판
분 량 : 250페이지
가 격 : 8,000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기독교계에서나 일반에서나 체계적으로 다룬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 이 책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평화주의 운동'의 역사와 흐름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평화주의운동의 시초가 '기독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한국교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음을 성경 말씀과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들을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지적한 글입니다.

후원인으로 참여해 주세요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 후원바랍니다.
- 조흥은행 : 355-04-495957
- 예금주 : 최정민
-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 후원인으로 참여해주세요.
- 외환은행 : 209-19-10563-2
- 예금주 : 이영태

펴낸날 : 2002. 5. 7

펴낸곳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도움을 주신 분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후원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불교연대, 고려대학교
법대학생회, 전국학생회
협의회, 21세기진보학생연
합, 서울시립대학교 교지
'대화문화', 디자인 모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와 함께 하는 사람들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기독교사회시민연대, 녹색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지지모임,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장애인인권운동을위한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좋은벗들,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함께가는 사람들, 환경운동연합, 21세기진보학생연합